

釜山浦와 釜山鎮城의 공간적 위치분석

심 봉 근*

〈목 차〉

- I. 머리말
- II. 富山浦와 釜山浦
- III. 釜山鎮城
- IV. 끝맺는 말

국문요약

부산은 처음 富山으로 표기되다가 성종 즉위년 12월부터 同音異字인 오늘날의 釜山으로 되었다. 그리고 釜山이라는 명칭은 『동국여지승람』을 비롯한 각종 문헌에서 가마(술)와 닮은 주위 산명에서 유래되고 그 아래에 釜山浦가 있다고 하였다. 釜山의 위치에 대해서는 동구 좌천동 뒷산인 甌山이라는 설이 대세를 이루는 것이 사실이지만 증산이라는 산명은 임진왜란 때 凡川甌山城(왜성)이 축조된 다음에 생긴 것으로 성종 초기부터 사용된 釜山과는 우선 시기적으로 차이가 있다 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각종 문헌자료를 통한 수치상 검토도 있었지만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 또 증산설을 주장하면서 자주 인용하는 1643년 申濡의 『登釜山次螺山韻』의 “山勢亞如釜 城門臨水開…波濤拔地廻 使華留滯日 登眺共徘徊”라는 구절은 임진왜란 이후의 부산진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자료로서 임진왜란 이전의 진성과는 무관한 것이다. 오히려 도움이 되는 자료는 『海東諸國記』에 실린 『東萊富山浦之圖』이다. 이 지도는 성종 5년(1474)에 禮曹佐郎 南悌가 삼포왜호의 失火 내용과 항거왜인의 호구조사 결과를 함께 보고하면서 卷頭地圖에 첨가해서 올린 것이다. 지도에는 자성대공원과 범천하구를 중심으로 그 주변의 영청과 강, 산, 섬, 바다 등이 비교적 잘

이 논문은 2012년도 중앙문화연구원의 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 前 동아대학교 총장

묘사되어 있다. 특히 자성대공원 동북쪽의 見江寺, 동쪽의 照(?)月菴 그리고 그 주위 동천 하구까지 밀집된 건물배치, 동천교량과 다리 등은 임란 이전의 부산 포를 묘사한 유일한 자료이다. 따라서 가마골 산 즉, 釜山 아래가 釜山浦라고 한다면 당시 부산포에는 현재의 자성대공원이 위치한 산 외에는 주위에 산이 없으므로 자성대공원이 곧 부산이라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 또한 1663년에 제작된 부산지역의 목장성지도에도 자성대공원 8부 능선과 그 아래 해안변에 각각 목책을 설치하고 그 주위 해안부에는 해자를 배치한 성곽을 표시하고 있는데 그 정상부에 묵서로 “釜山”이라고 표기하여 부산의 위치를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주고 있는 셈이 된다.

다음은 부산진성의 위치이다. 부산진성의 위치는 임진왜란을 경계로 그 이전과 이후로 지역이 구분된다. 즉 임진왜란 이전에는 『해동제국기』에 영청으로 표기된 지금의 좌천동 봉생병원 북동쪽의 해안선에 근접한 계곡부나 저지대에 위치하였다고 생각되며, 현재 정공단은 북서쪽 경계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조선 후기에 제작된 지도에서는 대부분 정공단 위쪽의 증산 정상부까지 진성이 위치하였던 것으로 표시하고 있어 수군진보 입지조건과는 맞지 않는 지형이다. 후대에 제작된 『부산진순절도』의 경우 증산에는 증산성을, 자성대공원 주위에는 성문을 포함한 성벽(후기 부산진성)을 각각 묘사하고 그 중간에 부산진성을 배치한 구도를 갖추고 있다. 선박이 집중한 해안선과 정상부 왜성, 그리고 해안의 성곽 등을 고려해도 전기한 예측과 대차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임진왜란의 발발로 부산성이 함락되고 왜인들이 좌천동 뒷산과 범일동 자성대공원 아래 해안선을 잇는 위치에 소위 범천증산성(왜성)을 축조하였다. 그러나 정유재란에서 패한 왜군이 물러가고, 조선에서는 범천증산성 가운데 해안부 자성대공원 주위의 왜성을 일부 수개축하여 부산진성으로 활용하였다. 왜관은 서쪽으로 이설되고 개운포진과 두모포진이 좌천동과 수정동으로 이설되었으며, 부산진성은 자성대공원 주위에 자리 잡게 된다. 『槎路勝區圖』를 비롯해서 『眞宰畫帖』의 『永嘉臺圖』, 『朝鮮後期地方地圖』 등에서도 하나같이 자성대공원 주위를 부산진성으로 표시하고 있다. 그리고 부산진성의 평면이 일반적인 타원형이나 원형 또는 방형이 아니고 다각형인 것은 왜성을 부분적으로 이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현재 자성대공원 주위의 성곽은 부산진성의 지성이 아니고 임진왜란 이후의 부산진성이 위치한 곳이라는 것을 분명히 해둔다.

종합해서 말하면 조선시대 富山의 原都心은 당시 富山浦가 위치했던 凡川(동천)하구의 현재 범일동 자성대공원 주위이다. 그리고 성종 초기 富山에서 釜山의 동음이자로 바뀐 유래가 된, 가마와 같이 닮은 釜山은 곧 자성대공원이

있는 산이다. 또 부산진성은 임진왜란 이전에는 좌천동 봉생병원에서 그 북동쪽 해안저지대에 위치하다가 훼손되고 정유재란 이후에는 현재의 범일동 자성대공원 주위에 위치하게 되었다. 따라서 부산의 원도심 재생 차원에서 현재 자성대라는 명칭은 본래대로 부산으로 복구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주제어 : 부산포(富山浦), 범천증산성(凡川甌山城), 정공단(鄭公壇), 「등부산차나산운(登釜山次螺山韻)」, 『해동제국기(海東諸國記)』, 「동래부산포지도(東萊富山浦之圖)」, 견강사(見江寺), 조월암(照月菴), 「사로승구도(槎路勝區圖)」, 『진재화첩(眞宰畫帖)』, 영가대(永嘉臺)

I. 머리말

한 나라의 역사와 문화는 국민의 정체성으로 이어지며 이것을 자료한 상품은 국민정신, 가치, 태도 등이 반영된 거울과 같다고 한다. 일반상품들이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충족이나 편리성, 실용성을 추구한다면 문화상품은 가치관이나 사고방식 등 문화적, 심리적 만족감을 지향한다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문화의 바탕이 되는 역사의식 또한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역사는 불변하고 고정적인 반면, 문화는 환경과 여건에 따라 때로는 변동될 수 있는 유동성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하면 문화는 도시의 발달이나 인물, 사건, 시대 등 환경과 조건에 따라 변화가 가능하지만 역사의 진실은 변동될 수가 없다. 21세기는 굴뚝 없는 문화산업이 세계경제를 선도할 것이라는 미래경영학자의 예언도 있다. 최근 우리 주변에서 인문학의 르네상스, 스토리텔링 등 문화와 관련된 산업들이 인기를 끌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한편 부산의 문화산업하면 누구나 한번쯤 부산의 역사와 문화 중심지였던 조선시대 원도심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될 것이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부산지』를 비롯한 부산시의 공공 홍보물, 그리고 문화재 안내판 등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예를 들면 釜山은 동구 좌천동에 위치하는 甌山으로 그 아래가 부산포이며 부산진성은 증산 아래 즉, 현재 鄭公壇 주변이라 하고 있다. 그리고 범일동에 있는 지금의 자성대공원 일대에는 부산진의 支城이 있었다고 소개하고 있다. 이런 이론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도 있어 아직 공감대 형성에는 미흡하다는 느낌을 갖게 한다.

필자는 최근 우연한 기회에 부산시 동구 범일동에 위치한 자성대공원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전기한 부산이라는 산명과 부산진성의 위치 등 부산 원도심에 대한 기존의 설명들이 사실과는 매우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이를 바로잡아 보는 것도 부산의 정체성 확립과 문화산업 육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에서 지금까지 수집한 각종 문헌과 그림 자료 등을 중심으로 부산포와 부산진성의 공간적 위치부터 규명해 보기로 하였다. 필자의 의견에 대해서도 역시 이설이 없지 않을 것이 예상된다. 그러나 여기서는 하나의 시안을 마련하여 시민들로 하여금 왜곡된 역사에 대한 비판의식을 제고시키는 계기를 만든다는 의미에서 과제에 접근해 보기로 하였다. 선학동배들의 적극적인 질정을 기대한다.

II. 富山浦와 釜山浦

오늘날의 부산은 처음에 富山으로 표기되었다. 즉, 『경상도지리지』의 富山浦, 『鹽盆 기사<자료 1>』를 비롯한 『세종실록』권150, 지리지, 경상도, 동래현의 富山浦<자료 2>, 『경상도속찬지리지』의 關防조와 野人所屬조에도 富山浦<자료 3>로 표기하고 있다. 또한 『동국여지승람』권23, 경상도, 동래현, 고적조에는 富山部曲<자료 4>이라 표기하였으며, 성종 16년(1485) 7월까지도 富山浦<자료 5>라는 기록이 남아있다. 富山部曲이 조선전기에 완성된 『동국여지승람』의 古跡조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富山이라는 표기는 우선 시기적으로 고려시대부터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료 1>

『慶尙道地理志』(1424), 경주도, 양산군, 동평현, 염분.

富山浦貢鹽盆三十坐 私鹽盆二坐 屬金海昌原鹽場官 富山浦軍須鹽盆七坐

『慶尙道地理志』(1424), 경주도, 동래현, 염분.

鹽盆二十五 內貢鹽盆二十三 左道富山浦處置使道軍須鹽盆一

<자료 2>

『세종실록』권150, 지리지(1454), 경상도.

(慶尙道)左道水軍都安撫處置使, 泊東萊富山浦

『세종실록』권150, 지리지(1454), 경상도, 경주부, 동래현.

左道水軍都按撫處置使本營 (在東平縣南七里富山浦)

<자료 3>

『慶尙道續撰地理誌』(1469), 경주도, 동래현, 關防.

富山浦在縣南漆亦(余?)里去官門十六里 本水營天順庚辰(1460) 開雲浦移置 差都萬戶 成化丙戌(1466) 改稱僉節制使 有軍兵舡九隻 所騎舡軍八百二十名 無軍兵舡五隻

『慶尙道續撰地理誌』(1469), 경주도, 동래현.

野人所屬 縣南十六里 富山浦恒居倭人五十五戶

<자료 4>

『동국여지승람』권23, 경상도, 동래현, 古跡, 1481.

富山部曲(卽釜山)

<자료 5>

『성종실록』권181, 성종 16년, 7월, 기유.

又富山浦第二十四船賜癸卯年米太二百碩 併以拜恩賜, 聖恩日益重, 而謝詞難盡之

한편 지금의 釜山이라는 표기는 성종 즉위년(1469) 12월<자료 6>에 보이는 것이 처음이며, 그 뒤 현재까지 계속해서 사용되고 있다. 물론 성종 즉위년 12월 부터 같은 왕 16년(1485) 7월까지의 富山浦와 釜山浦의 동음자(同音字)가 서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오늘날의 釜山이라는 명칭 사용은 조선조 성종 때부터라고 할 수 있다.

필자가 여기에서 주목하는 내용은 釜山浦라는 지명의 유래와 아울러 그 위치분석이다.

먼저, 지명의 유래이다. 지명의 유래에 대해서는 『동국여지승람』을 비롯하여 『동래부지』¹⁾, 『여지도서』²⁾, 『동래부읍지』³⁾ 등 <자료 7·8·9·10>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과 같이 釜山浦는 가마(솥)와 같은 모양을 가진 산 아래에 위치하여 붙인 명칭이라 하고 있다. 특히 이들 자료 가운데 『동국여지승람』이 釜山이라고 지명 표기가 시작된 성종 때의 기록이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그 신빙성이 더욱 인정되는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여지도서』나 『동래부지』, 『동래부읍지』는 후대에 전기한 『동국여지승람』의 해당 기록을 차용한데 불과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지금까지 <자료 7>의 설명에 대한 이설이 없는 것을 고려하면 釜山浦라는 지명은 가마(솥)와 닮은 주위 산에서 유래되어 同音異字인 富山浦에서 釜山浦로 바뀐 것으로 해석된다.

<자료 6> 『성종실록』권1, 성종 즉위년 12월 갑자.

東萊縣令潘熙辭 院相申叔舟韓明澮具致寬 以事詣闕啓曰 “熙嘗爲釜山浦僉節制使 秋毫不犯 倭人咸服之 今授縣令 縣令卑官 不可以此示彼人也 今慶尙道水軍節度使禹貢 秩滿當遞 請以熙代之”

1) 奎章閣所藏本으로 영조·정조 때 제작된 『慶尙道邑誌』 가운데 하나이다.

2) 國史編纂委員會, 『韓國史料叢書10 : 『輿地圖書(下)』』, 探究堂, 1973.

3) 韓國學文獻研究所, 『韓國地理誌叢書 : 『邑誌』20, 慶尙道④』, 亞細亞文化社, 1987.

<자료 7>

『동국여지승람』 권23(1481), 경상도, 동래현, 山川.

釜山在東平縣 山如釜形故名 其下卽釜山浦也 有恒居倭戶 北距縣二十一里

<자료 8>

『東萊府誌』(1740), 동래부, 山川.

釜山在東平縣 山如釜形故名 下有釜山開雲兩鎮 舊有恒居倭戶 肅宗戊午移館新草梁 距府二十一里

<자료 9>

『與地圖書』(1765), 경상도, 東萊鎮 東萊都護府, 山川.

釜山在府南二十一里 山如釜形故名 其下卽釜山浦也 有恒居倭戶 肅宗朝戊午移館草梁

<자료 10>

『東萊府邑誌』(1832), 東萊府, 山川.

釜山在府南二十一里 山如釜形故名 其下卽釜山浦也 有恒居倭戶 肅宗朝戊午移館草梁

다음은 부산이라는 산의 위치비정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동구 좌천동 뒷산인 甌山이라는 설이 현재 대세를 이루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당감동 金勇山과 범일동 子城臺公園 일대를 지목하는 설도 있다. 현재 정설처럼 되어있는 증산설은 신라 경덕왕 때 大甌縣이 東平縣으로 개명되었는데⁴⁾ 좌천동 뒷산인 증산은 신라시대 대중현에서 유래한 산명이라는 이론이다. 그리고 釜山이라는 머리글자 釜도 같은 炊器에 속하는 甌에서 유래되었다 하고 있다. 이 설의 검증과정에서 조선후기의 殉節圖와 地方地圖 등 각종 그림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은 甌山이 大甌縣이라는 大甌에서 유래되었다는 것과 甌은 시루를, 그리고 釜는 가마를 의미하는데 시루와 가마가 같은 취기에 속하므로 甌山이 곧 釜山으로도 표기될 수 있다는 부분이다.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삼국사기』 지리지에 나타나는 지명들이 신라 경덕왕 이전에는 대부분 표음문으로 표기되었으나 경덕왕 때 표의문으로 바뀌게 된다는 점이다. 그 과정에서 중국 지명을 따른다든지 아니면 기존 명칭을 표의문

⁴⁾ 『三國史記』 권34, 지리지, 신라, 동래군 “東萊郡本居柒山郡 景德王改名 今因之 領縣二 東平縣本大甌縣 景德王改名 今因之 機張縣本甲火良谷縣 景德王改名 今因之”

으로 풀이해서 사용한 예가 대부분이다. 이런 사실을 감안하면 대증이라는 명칭도 자연 표의문으로 바뀌어야 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대증현은 바뀌지 않고 조선전기까지 대증산도 아니고 증산으로 그대로 山名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논리이다. 더욱 주목되는 것은 조선전기까지 증산이라는 산명은 부산에서 찾아볼 수 없다가 임진왜란 이후의 기록에서부터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東萊府誌』의 城郭조<자료 11>에 임진왜란 때 이곳에 凡川甌山城을 축조하였다는 기록이 처음이다. 즉, 증산이란 증성이 있는 산이라는 의미로 증산성 축조 후에 생긴 명칭임이 분명해 보인다. 그것은 임진·정유왜란 중 우리나라 남해안일대에 왜인이 축조한 성(왜성)을 증산성이라 부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현상이다.⁵⁷⁾

따라서 釜山이라는 명칭의 표기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임진왜란 이전인 조선 성종 때부터 이미 사용한 것으로 밝혀져 선조 때 이후에 명칭된 증산과는 우선 시기적으로 대차를 나타내고 있어 상호 무관함을 알 수 있다. 또 가마와 시루가 같은 취기라는 데서 부산이라는 명칭이 생겼다는 이론은 비학문적인 비약에 불과하며 논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좌천동에 위치한 증산은 부산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면 부산은 과연 어디인가. 문헌자료상 가장 먼저 편찬된 것으로 알려진 위의 <자료 1>에서는 동래현과 동평현의 중간 경계가 되는 곳에 餅橋(駢梯)가 위치하는데 그 곳이 동래현에서는 서쪽으로 10리 25보 지점이고 동평현에서는 동쪽 6리 지점이라 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합하면 동래현에서 동평현까지는 16리 25보의 거리라는 수치가 나온다. 그리고 <자료 2>의 좌도수군도안무처치사본영조에는 본영이 동평현 남쪽 7리 지점의 부산포에 있다고 하여 동래현에서 동평현을 거쳐 부산포에 이른다면 수치상으로 23리 25보 지점에 위치하게 된다. 그러나 <자료 3>의 관방조에서는 부산포는 현 남쪽 漆亦리에 있으며 동래현 관문에서 16리 지점이고, 水營이 있었던 곳이라 하고 있다. 앞의 縣 남쪽의 縣은 동평현을 의미하는 듯하며 漆亦리는 지명이라기보다는 오히려 漆余里라는 거리를 나타내는 수치를 잘 못 표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것은 <자료 2>에서 본영이 동평현 남쪽 7리 지점에 위치한다는 내용과 거리상으로 일치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16리라는 숫자는 동래현 관문에서 직선거리를 나타내는 수치로 해석되지만 거의 동시기에 편찬된 <자료 7>에서는 북쪽 동래현과 21리 지점에 부산이 위치한다하고 이를 인용한 <자료 8·9·10>도 그대로 싣고 있다. 또한 후대

⁵⁷⁾ 임진왜란과 정유왜란 때 왜인이 축조한 양산 물금성, 거제 장문포성, 울주 서생포성, 울산 도산성, 사천 선진성 등을 증산성이라고 불렀다.

에 편찬된 『경상남도여지집성』<자료 12>⁶⁾이나 『동래군지』<자료 13>에서는 20리 지점에 부산이 위치하는 것으로 기록하여 각 자료마다 수치상 차이를 보이고 있다. 물론 부산진 자체가 자주 이설되기는 하였지만 치소나 경계 중 어느 지점을 기점으로 한 수치인지도 분명하지 않아 문헌자료를 이용한 위치비정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부산포와 부산진(영)은 위치상 분리해서 설명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두 혼돈되게 공통으로 사용하여 어려운 점이 없지 않으나 상호 근접지역에 위치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⁷⁾

그밖의 문헌자료 가운데 참고 되는 것은 申濡의 『登釜山次螺山韻』이라는 詩韻<자료 14>이다.⁸⁾ 여기에 “山勢亞如釜 城門臨水開…波濤拔地廻 使華留滯日 登眺共徘徊”라는 구절을 모두 주목하고 있다. 우선 이 詩韻이 작성된 것으로 알려진 인조 21년(1643)은 시기적으로 임진왜란 이후에 해당한다. 임진왜란 이전의 부산진성은 삼포왜란과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훼손되고 그 자리에 범천증산성이 축조되었다. 그러므로 신유는 성종 때에 축조된 부산진성의 성문을 바라볼 수 없는 시기에 부산에 들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신유가 바라본 성문은 임진왜란 이후에 증산성을 일부 수·개축해서 사용한 부산진성의 바닷가 성문을 보았을 것이다. 산의 형태는 물론이고 성문이 바다에 접한 것이나 파도치는 모습, 사신들의 숙박과 산책하는 모습 등 전체 시구에서 부산과 永嘉臺⁹⁾ 주변 분위기를 느끼게 하고 있다. 임진왜란 이후의 진성 위치가 밝혀지면 그 내부 또는 주변의 산이 부산이었다는 짐작을 가능하게 될 것이다.

또한 이를 보완하는 자료로서 비교적 이른 시기 즉, 임진왜란 전후에 제작된 그림과 지도가 있다. 그 중 하나는 임진왜란 이전에 제작된 『해동제국기』¹⁰⁾에 실

6) 慶尙南道誌編纂委員會, 『慶尙南道輿誌集成』, 1963.

7) 예를 들면 『大東地志』 권7, 경상도, 동래, 坊面조에 보면 “東平 南初十五 終二十五 釜山 南初二十 終二十五”라 하여 동평은 동래읍에서 남쪽으로 시작되는 지점은 15리, 끝나는 지점은 25리라고 하여 일정구역의 경계가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그리고 부산의 경우도 시작되는 지점이 20리이고 끝나는 지점은 25리라 하여 그 범위 내에 부산포, 부산진성 등이 별도로 위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8) 申濡는 조선 광해군에서 현종 사이에 생존한 문인으로서 인조 14년(1636) 별시문과에 급제해 같은 왕 20년 이조좌랑이 되고 효종 1년(1650) 도승지가 되었다. 효종 3년에는 謝恩副使가 되어 청나라에 다녀왔고 현종 2년(1661) 刑曹參判에 이어 戶曹·禮曹參判이 되었으며 소현세자를 따라 瀋陽(지금의 중국 중국 랴오닝성 선양)에 다녀오기도 하였다. 글씨에 능하고 『竹堂集』이라는 저서가 있다.

9) 永嘉臺는 광해군 6년(1614) 순찰사 權珮가 전선보관을 위한 선창을 만들면서 파낸 토사로 부산진성 옆에 언덕을 만들고 그 위에 설치한 건물이다. 『嶺南邑誌』에 실린 『釜山鎮誌』에 “永嘉臺 在南城外 船艙東壓臨大海 萬曆曆甲寅巡使權珮穿地爲濠 以藏戰船築小丘 爲臺權公卽永嘉人故名”이라 하고 있다.



도 1. 「동래부산포지도」



도 2. 「동래부산포지도」 세부

린 「東萊富山浦之圖」이다. 여기서도 아직 富山浦라 표기하고 있다. 성종 2년(1471) 영의정 신숙주가 왕명에 의해 찬진한 해동제국에 관한 기록이다. 해동제국은 日本本國, 九州, 對馬, 一岐, 琉球國을 총칭하는 말이며 「동래부산포지도」는 성종 5년(1474)에 禮曹佐郎 南悌가 삼포왜회의 失火 내용과 항거왜인의 호구조사 결과를 함께 보고하면서 「熊川薺浦之圖」, 「東萊富山浦之圖」, 「蔚山鹽浦之圖」 3매를 卷頭地圖에 첨가해서 올린 것이다. 「동래부산포지도」에는 부산포를 중심으로 주변의 관청과 강, 산, 섬, 바다 등이 비교적 잘 나타나 있다. 내부에는 동래현을 비롯해서 동평현, 영청, 왜관, 절영도 등을 표시하고 있다. 그러나 부산이라는 지명은 보이지 않는다. 영청은 증산 아래 현재 좌천동 봉생병원 주변에, 왜관은 영청에서 동쪽 약간 떨어진 현재 자성대공원 서쪽에, 동평현은 금용산 아래의 현재 당감동 중

앙에, 동래현은 황령산 북쪽 현재 동래읍성 주변에 성곽과 함께 남쪽으로 바다를 건너 절영도를 각각 표시하고 있다. 주목되는 것은 이 그림이 화면 맨 중앙에 위치하는 현재의 자성대공원과 범천하구를 중심으로 그려져 있다는 사실이다. 자성대 정상에서 동북쪽으로 見江寺, 그리고 동쪽 하단부에는 照(?)月菴이라는 사원 건물이 표시되어 있다. 관계 자료에 의하면 부산포에는 寺社 4개소와

10) 『해동제국기』의 찬자 申叔舟는 본관이 高靈이고 자가 疋翁, 호가 希賢堂 또는 保開齋이다. 공조참판 申樞의 이들이다. 이 책은 그의 견식과 경험 그리고 당시 일본에서 전래한 문헌과 예조에서 관장하는 관계 기록을 참작하여 교린관계에 대한 후세의 軌範을 만들기 위해 찬술한 것이다. 연산군 때의 追錄을 제외하면 모두 본인의 찬술로 알려져 있다.

승려 7명이 상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¹¹⁾ 또한 그 주위에는 동천 하구까지 밀집되게 건물을 배치하고 동천에는 다리가 놓여 있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임진왜란 이전의 부산포를 묘사한 유일하고도 귀중한 자료라고 판단된다. 물론 부산이라는 표기가 없는 것은 제작자가 지도 명칭대로 부산포를 묘사하였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항구들이 강과 바다가 만나는 하구지점이나 주위 구릉상에 주로 위치한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당시 범천 하구에 위치하는 자성대공원 일대는 항구의 입지로서는 최적의 장소임은 분명하다. 특히 왜관이 이곳에 위치했던 것도 범천 하구의 수로를 이용한다는 입지조건이 충분히 고려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 두 곳의 사원(寺菴)이 항구 내에 위치하는 것도 선원들의 무사한 항해와 안녕을 기원하기 위한 기도처로 해석되며 인접한 『웅천제포지도』에는 10개의 寺社와 40명의 승려가 상주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¹²⁾ 따라서 전기한 문헌자료 대로 가마골 산 즉, 부산 아래가 부산포라고 한다면 당시 부산포에는 현재의 자성대공원이 위치한 산외는 주위 산이 없었으므로 자성대공원이 곧 부산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이 된다.

다른 하나는 임란이후 비교적 이른 시기인 1663년에 제작된 부산지역의 『목장성지도』이다.¹³⁾ 이 지도에는 부산지역에 분포하는 목장성이 묘사되어 있는데 현재 자성대공원 위치에는 8부 능선과 그 아래 해안선에 각각 목책을 설치하고 그 주위 해안부에는 해자가 둘러진 성곽이 표시되어 있



도 3. 『목장성지도』 중 釜山 부분

다. 정상부의 목책은 자성대를 나타내고 하단부는 임진왜란 이후의 부산진성을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정상부에 묵서로 된 “釜山”이라는 글자가 정확히 표기되어 부산의 위치를 확인시켜 주는 자료가 되고 있다. 전기한 『해동제국기』의 『동래부산포지도』에 나타난 부산을 다시 뒷받침하는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비교적 이른 시기에 작성된 문헌이나 그림 자료 등을 분석한

11) 이상훈, 『임진왜란 중 적진포해전』, 『朝鮮時代 慶尙道 固城地域 水軍鎭堡와 南村鎭(積珍浦)』, 固城郡文化院, 2014, 43~56쪽 참조.

12) 이상훈, 앞의 논문, 43~56쪽 참조.

13) 동래부 『목장성지도』, 1663년. 지본채색, 24.0×36.0cm,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보물 제1595-1호.

결과 부산은 현재 자성대공원이 있는 산을 말하는 것이 분명하고, 부산포는 그 바로 아래의 범천하구일대에 위치했던 항구였다고 할 수 있다.

<자료 11>

『東萊府誌』권18, 城郭.

凡川甌山城 在釜山西三里 倭人所築 今廢

甌山城 在府東一里 壬亂倭人所築今廢

<자료 12>

『慶尙南道輿誌集成』, 『東萊府邑誌』, 城池.

釜山鎮城 在府南二十里 僉使所居也 壬辰亂倭人築之 城周一千六百八十九尺

<자료 13>

『東萊郡誌』권上, 城郭.

釜山鎮城 周一千六百八十九 高十三尺

『東萊郡誌』권上, 樓臺亭閣.

子城臺 在南二十里 旧釜山鎮東 有小山突起 西北欠陷處 補

子城 故名之 上有明將萬世德記功碑

<자료 14>

『海槎錄』, 申竹堂海槎錄, 『登釜山次螺山韻』(1643).

山勢亞如釜形 城門臨水開 人煙古萊國 形勝太宗臺 島嶼連天遠 波濤拔地廻 使華留滯日 登眺共徘徊

III. 釜山鎮城

조선에서는 태조 때 왜구방비를 목적으로 慶尙道水軍僉節制使를 두었다가¹⁴⁾ 세종 때 水軍按撫處置使로 바꾸고 慶尙道左道按撫處置使를 부산에 두었다.¹⁵⁾ 그 뒤 본영이 天順 庚申(세조 6년, 1460)에 開雲浦로 移置되고<자료 3>

14) 『태조실록』권5, 태조 3년(1394) 2월 계미에는 “慶尙道水軍僉節制使 安處善이 왜적 12명의 목을 베고 노획한 병기까지 모두 바치니 국왕이 명하여 宮醞과 무늬 있는 비단과 명주를 내려 주었다”고 하여, 태조 3년 이전부터 수군첨절사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燃藜室記述』에서는 태조 병오년(5년) 처음 僉節制使를 두었다고 하여 차이가 있다(『燃藜室記述 別集』 권8, 官職典故, 水軍節度使).

都萬戶를 두었다가 成化 丙戌(1466)에 僉節制使로 개칭하였으며 多大浦, 海雲浦, 西平浦, 豆毛浦, 開雲浦, 西生浦, 鹽浦, 包伊浦, 甘浦, 烏浦, 丑山浦, 漆浦 등의 萬戶營을 소관하였다<자료 15>.16) 성종 14년(1483)에는 부산포진 침절제사 薛順祖가 부산포에 主鎭의 설치를 건의하였으나 성사되지 않았다<자료 16>. 그러면서도 성종 16년(1485)에는 부산진성의 축조가 이미 절반 이상으로 진척되었으며<자료 17>, 성종 21년에는 부산진성의 축조사업이 이미 일단락되었다<자료 18>.

이렇게 처음 축조된 부산진성의 위치는 과연 어디인가 하는 것이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과제이다. 앞에서도 잠시 언급하였듯이 부산포와 부산진의 위치는 분명히 구분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문헌에서는 혼돈해서 사용하고 있다. 분명한 것은 부산포에 수군시설인 부산진이 위치하였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마치 초읍동에 위치했던 미군 하얏리아부대를 부산에 있었다고 하는 것과 같은 의미로 볼 수 있다. 이 과제를 풀이하는 데는 먼저 전기한 『해동제국기』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 책 편찬 당시까지 부산진에는 성곽이 축조되지 않았다. 그러나 부산의 지형이나 관청의 위치 등에 대해서는 비교적 정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우선 이 자료를 참조하면 부산진성은 영청으로 표기된 지금의 좌천동 봉생병원 주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현재 좌천동 봉생병원에서 그 북동쪽의 당시 해안선과 바다에서 바라볼 경우 자성대 공원이 가려 시야에서 차단될 수 있는 계곡부나 저지대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것은 조선전기의 연해읍성¹⁷⁾이나 수군진성¹⁸⁾이 전방의 바다와 직접 대면하지 않는 즉, 바다에서 조망이 은폐되는 계곡부를 선택한다는 입지조건이 충분히 고려되었을 것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남해안에 축조된 초기 수군진성이 표고 20m를 전후한 낮



도 4. 동구지역 옛 우물(봉생병원 옆)

15) 『세종실록』권10 세종 2년(1420) 10월 27日(壬戌) 3번째 기사에는 “水軍都節制使를 고쳐 水軍都按撫處置使라고 하였다”라고 하였는데 전기한 연려실기술에서는 “世宗辛丑年(3년)에 都按撫處置使를 두었다”고 하여 역시 차이를 보이고 있다.

16) 民族文化推進會, 『古典國譯叢書42 : 『國譯新增東國輿地勝覽』III』, 1969.

17) 李日甲, 『남해안지역 연해읍성의 편면형태에 관한 연구』, 『文物研究』13, 129~181쪽.

18) 車勇杰, 『高麗末·朝鮮前期 對倭 關防史 研究』,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8.



도 5. 변박, 『부산진순절도』, 1760년,
견본채색, 145.0×96.0cm, 육군박물관
소장, 보물 제391호



도 6. 변박, 『동래부순절도』, 1760년,
견본채색, 145.0×96.0cm, 육군박물관
소장, 보물 제392호

은 지점에 대부분 위치했다는 사실도 참고가 된다.¹⁹⁾ 흥미롭게도 본영으로 표시된 지점에 당시 수군들이 직접 사용한 것으로 추측되는 우물이 지금도 남아 있다.²⁰⁾ 이 우물이 위치한 지형을 참고하면 당시 해수면 위치와 성벽의 해안 쪽 가장 자리에 대해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조선 후기에 제작된 지도에서는 대부분 정공단 위쪽 증산 정상부까지 진성이 위치한 것으로 표시되고 있어 수군진보 입지조건상 납득하기 어렵다.²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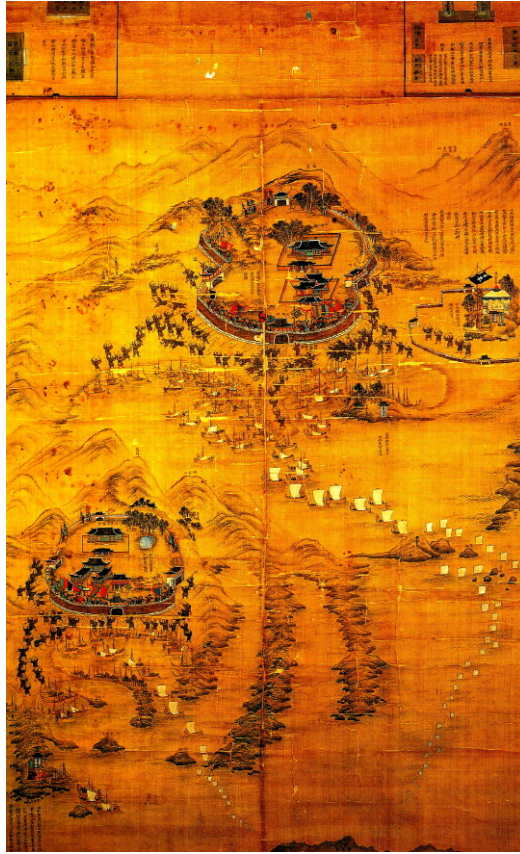
다음은 『부산진순절도』이다.²²⁾ 이 순절도의 경우 상단 증산부분에는 증산성을, 하단 자성대공원 주변에는 성문을 포함한 성벽을 각각 묘사한 뒤 그 중간에 부산진성을 배치하는 구도를 하고 있다. 배가 떠 있는 해안선과 정상부 왜성, 그

19) 나동욱, 『부산진성을 통한 부산의 명칭유래 일고찰』, 『박물관연구논총』18, 2012, 105~133쪽.

20) 우물은 부산시 동구 좌천동 681번에 위치하며 막돌로 축조한 원형우물이다. 인접한 수정동 295번지 수정시장 내에는 장대석으로 축조한 사각형 우물이 있다. 수정동 우물을 이설한 왜관이나 두모포진에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21) 서울대학교 奎章閣編, 『朝鮮後期地方地圖：慶尙道編』의 『開雲浦鎮地圖』에는 증산 정상부에 성곽과 함께 ‘釜山故基’, 그리고 『豆毛浦鎮地圖』에는 정상에 ‘釜山古址’라 표기하고 있다.

22) 『부산진순절도』는 견본채색의 그림으로 육군박물관에 소장중이며 보물 제391호로 지정되어 있다. 영조 36년(1760)의 『동래부순절도』와 함께 동래 화원이었던 변박의 작품으로 알려져 있다.



도 7. 이시눌, 『임진전란도』, 1834년, 141.0×85.8cm,
견본채색,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소장

리고 하단부에 있는 후기 성곽과의 간격 등을 고려하면 초기진성은 현재의 정공단을 경계로 그 아래쪽에 위치했던 것으로 추측된다. 보다 후대에 제작된 『임진전란도』의 만공단²³⁾과 정공단²⁴⁾ 화기에도 관계 기사가 나타나 있다. 그러나 순절도 자체가 후대에 묘사되면서 현지 환경을 충분히 고려한 결과라고 생각되지만 묘사과정에서 성곽을 다소 과장되게 표현하여 사실과는 약간 동떨어진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인접한 『동래부순절도』와 『부산진순절도』 제작자가

23) “壬辰倭賊毀釜山城 別築一城於舊城東南 卽今僉使所鎮城內 有山陵高就其頂 又築子城爲將臺一丁酉天將萬經理世德遂倭至此三載 相持己亥還勒功立碑 其後八十四年壬戌 閔統使暹懼原碑之泐而不傳移刻舊文 別立新碑”라 하여 新鎮城의 위치와 만공단 설치, 관리, 新碑설립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4) “英廟朝丙戌 本鎮僉使李光國所築 而在釜山鎮舊城址 以爲忠壯公殉節於此故也 每年四月十四日 僉使行李庭憲卽鄭公慕賓同時殉節 故配享”라고 하여 舊鎮城이 정공단 주변에 위치한 것을 설명하고 있다.

동일하고²⁵⁾ 또한 그 뒤 같은 동래부에 종사하는 화원들이 묘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현상이라 할 수 있지만²⁶⁾ 표주박처럼 중간이 잘록한 성곽의 평면은 『동래부순절도』, 『부산진순절도』, 『임진전란도』의 다대포진성과 부산진성이 가지는 공통적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이런 평면은 당시 남해안 일대의 다른 수군진성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형태임이 분명하다. 특히 아래쪽의 성벽과 성문은 부분적이지만 임진왜란 이후의 부산진성을 나타낸 것이 분명하다. 결국 이 순절도는 임진왜란 이전과 이후의 성곽을 각각 함께 묘사한 것이며 일부에서 제기한 내성과 외성을 가진 구조는 아니다.²⁷⁾ 그리고 조선시대 수군진보성이 내·외성의 구조를 가진 예는 남해안에서는 아직까지 확인된 바가 없다. 앞으로 고고학적 학술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따라서 전기한 대표적인 두 자료를 참고하면 임란 이전의 부산진성은 현재의 봉생병원에서 시작해서 그 북동쪽 정공단 아래쪽 저지대에 위치했다는 가설을 우선 제기해 둔다.

<자료 15>

『동국여지승람』권23, 경상도, 동래현, 關防.

釜山浦鎮 在縣南二十一里 有左道水軍僉節制使營 所管 豆毛浦海雲浦 鹽浦甘浦包伊浦漆浦烏浦丑山浦多大浦西生浦石浦 周一千六百八十九尺 高三尺 有恒居倭戶 僉節制使一人

<자료 16>

『성종실록』권160, 성종 14년 11월 임인.

釜山鎮僉節制使薛順祖上書辭職 又請設主鎮于釜山浦 命議于領敦寧以上 鄭昌孫沈澮議 “釜山開雲兩處形勢, 難以遙度, 令曾經其道觀察使、節度使, 議便否定之何如” 尹弼商尹壕李克培議 “仍舊爲便” 洪應議 “置鎮

25) 김동철, 『倭館圖를 그린 卜璞의 대일교류활동과 작품들』, 『조선통신사 사행록연구총서』10, 학고방, 2009, 296~314쪽; 李昞周, 『朝鮮後期 在地畫員 小考: 18세기 東萊 在地畫員 卜璞의 官需繪畫 연구』, 『文物研究』14, 동아시아문화연구소, 2008, 165~211쪽.

26) 李昞周, 『동래부 화원 李時訥연구』, 『역사와 경계』76, 부산경남사학회, 2010, 147~183쪽.

27) 崔笠(1539~1612)의 『簡易集(1631)』에 “釜山有內外城 外城蕪海 內城卽山”이라 하고 黃暹의 『息庵集(1769)』에도 “釜山有內外城 外城蕪海 內城卽山”이라 하여 부산진성이 내외성으로 구성된 성곽구조라고 설명하고 있다. 시기적으로 『간이집』은 『부산진순절도』(1760)가 제작되기 이전의 기록이고 『식암집』은 9년 정도 이후의 기록이다. 문맥상으로는 『식암집』이 『간이집』의 내용을 인용한 듯하다. 여기서 내외성의 구분은 임진왜란 때 축조된 범천증산성의 산지부와 해안부를 구분해서 설명하거나 아니면 임진왜란 이후의 부산진성을 전기한 목장지도와 같이 상(만공단이 위치한 자성대부분)·하단(해안부의 신부산진성)을 이중 구조로 보고 이를 설명한 것인지 자세하지 않다. 기록 당시의 환경을 고려하면 후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많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부산진성은 내외성의 구조를 가진 것이 결코 아니다.

沿革 世祖已酌緩急 審輕重 爲之已久 安得以一二人所見 遽爾改革哉 且 順祖以老將無才辭之 不可不敦勸以勉之”

<자료 17>

『성종실록』권176, 성종 16년 3월 무술.

四道巡察使洪應來復命 上引見 謂曰 “今設堡之地 皆要害乎” 對曰 “臣所見全羅道六處 皆可設堡 臣已令拾石 慶尙道三浦 曾設城堡 但低微不完 有同兒戲 釜山浦 僉使修築其城過半 臣令他浦 依釜山修築”

<자료 18>

『성종실록』권243, 성종 21년 8월 기유.

是月 築慶尙道釜山浦城 周二千二十六尺

한편 부산진성은 중종 5년(1510) 4월 삼포왜란으로 일부 소실되었다<자료 19>. 석축보다는 문루나 동헌, 객사와 같은 목조건물을 중심으로 훼손되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것을 계기로 부산진성과 다대포성은 상호 이설과 합병을 거듭하다<자료 20> 부산진성은 중종 29년(1534) 수리해서 좌수영으로도 이용된다<자료 21>. 그 뒤 중종 39년 좌수영은 해운포로 다시 이설되고<자료 22>, 부산진성으로 환원된다.

<자료 19>

『중종실록』권11, 중종 5년 4월 기해.

柳繼宗馳啓曰 “今月初四日 倭賊攻陷釜山浦城 至初九日 留連傍近民家 及多大浦帝釋谷堡等處 出入攻掠 又以船載恒居倭人及家財 向海中而去 盡燒各浦兵船 使不得追逐”

<자료 20>

『중종실록』권12, 중종 5년 8월 계묘.

下備禦防略于慶尙道兵使 其一曰 本道軍士及閑良 姑令合番待變 其二曰 賊若大至 小堡兵力 似不能支 左道海雲浦合于東萊帝釋谷 多大浦合于釜山浦 豆毛浦合于機張 軍營浦 合于西生浦 右道牛古介 合于城高介 栗浦合于知世浦 待變

<자료 21>

『중종실록』권78, 중종 29년 9월 임진.

韓效元啓曰 “聞將遣曹閔孫 巡察邊地 臣於經筵 已略啓之 猶未得盡達

自前有置鎮羊腸串之議 誠若設之 依彌助項故事 置爲巨鎮 然置鎮於此串 則釜山浦在內 以內鎮對倭似未便 故移置釜山於多大浦 又以釜山浦爲左道水營 令水使居之 置鎮於羊腸串 以多大浦軍卒移充之 以堂上官爲僉使 則自爲巨鎮矣 諸小鎮不緊之處 皆可罷也 且移水營移釜山等事 遙度則疑若有弊 然釜山浦 則本對倭之處 客館亦大 水使可居 多大浦官舍 又甚宏壯 釜山僉使 亦可居矣 惟客館可加營造 張順孫在時 常欲啓之 今於曹閔孫之往 凡小鎮可沿 可革 及軍卒移置等事 并令觀之 且左道兵營 水營 皆在蔚山郡 相距不遠 若移水營 則既合於事體 又便於形勢 凡此等事 曹閔孫與監司 兵·水使 同觀便否 以啓之意 令兵曹爲事目以送何如” 傳曰 “所言至當 依啓”

<자료 22>

『중종실록』권104, 중종 39년 9월 임술.

加德島築城使方好義竣事復命…仍以單子 “…一 左道形勢 左水營在雲海堡(海雲堡) 北距東萊五里 西距釜山浦十五里 率東萊軍卒 救釜山及多大浦 又令梁山蔚山左兵營 繼援于後…一 左道釜山浦 接待倭奴緊重之地 僉使須應得宜 撫禦軍卒 恩威并行 然後軍卒亦蘇復 至於倭人卜物 輸轉之時 無猥濫之弊 所關非輕 有威望堂上官擇差 接待倭人 言語酬答 不失其宜 鎮服其心 使無驕縱 何如

선조 25년(1592) 4월 임진왜란의 발발로 부산성이 함락되고<자료 23>, 이듬해 2월 왜인들이 좌천동 뒷산과 범일동 자성대공원 아래 해안선을 잇는 위치에 소위 범천증산성을 축조한다<자료 24>.²⁸⁾

정유재란에서 패한 왜군이 물러가고 조선에서는 선조 39년 범천증산성 가운데 범천하구 왜관 주변의 증산성을 일부 수·개축해서 부산진성으로 활용한다<자료 25>. 그리고 그 주위에 위치했던 왜관은 서쪽(현재 고관)으로 이설된다<자료 26>. 그러나 일본인의 반발도 만만치 않았다<자료 27>. 개운포진과 두모포진은 임란을 계기로 과거 본영이 위치



도 9. 『진재화첩』 중 부산진성 부분

²⁸⁾ 『東萊府誌』권18, 城郭조에 “凡川甌山城 在釜山西三里 倭人所築 今廢” 및 “甌山城 在府東一里 壬亂倭人所築今廢”이라 하였다.



도 8. 이성린, 『榑路勝區圖』

했던 곳으로 이설되었다가 두모포진은 다시 고관 근처 해안으로 이설된다.²⁹⁾ 이렇게 임진왜란 이후에 수군의 이동과 맞물려서 부산진성은 현재의 자성대공원 주변에 자리 잡게 된다. 榑路勝區圖³⁰⁾를 비롯해서 眞宰畫帖의 永嘉臺圖³¹⁾ 등 임란 이후의 각종 지리지나 지도에서 하나같이 자성대주변을 진성으로 표시하고 있는 것은 같은 의미이다.³²⁾ 그리고 진성의 평면 형태가 일반적인 타원형이나 원형 또는 방형이 아니고 다각형인 것은 부산진성이 증산성의 성벽을 부분적으로 이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자성대공원 주변의 성곽은 부산진성의 지성이 아니고 임진왜란 이후 부산진성이 위치했던 곳이라는 것을 분명히 해준다. 지성이란 조선시대 관방성이나 연해읍성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용어이며 구조이다. 따라서 부산진성은 우선 시기적으로 임진왜란 이전과 이후로 구분해서 위치를 비정할 수 있는데 이전은 현재 동구 좌천동 동북쪽 해안 저지대에, 이후에는 현재의 자성대공원 주변에 각각 위치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부산이라는 산명도 현재의 좌천동 뒷산인 증산이 아니고 임란 이후 조선말까지 부산진성이

29) 開雲浦鎮은 宣祖 25년(1592) 蔚山에서 부산으로 이설되었고 豆毛浦鎮은 機張에서 仁祖 7년(1629) 좌천동 왜관 옆에 이설되었다가 숙종 4년(1678) 왜관을 영도로 다시 이동시킨 후 2년 후 수정동 왜관이 있던 위치로 이설한다. 그러나 대동지지에서는 선조 25년에 개운포진과 함께 두모포진도 부산으로 이설된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30) 이성린, 『榑路勝區圖』, 1748년, 지본담채, 35.2×70.3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31) 영가대가 그려진 진재화첩은 동아대학교 박물관 소장품이다. 眞宰 金允謙(1711~1775)은 18세기 실경산수화가로 겸재 정선과 함께 진경산수화를 개척한 화가 중의 한분이다. 1770년 소촌도찰방으로 임용되어 관할지역과 그 인근 즉, 진주를 중심한 합천, 거창, 함양, 산천과 부산 등 명승지를 유람하고 실경을 그린 14점의 화첩이다. 부산지역은 태종대, 영가대, 물운대 등의 그림이 포함되어 있다.

32) 전기한 규장각소장 조선시대 후기 지방지도들 비롯해서 여지도서, 대동여지도, 영남읍지 등 각종 군현지도에는 모두 자성대 주변을 부산진성으로 표시하고 있다.

위치했던 범일동 자성대공원이 곧바로 부산이라고 할 수 있다.

<자료 23>

『선조실록』권26, 선조 25년 4월 임인.

倭寇至…賊船蔽海而來 釜山僉使鄭撥 方獵於絕影島 謂爲朝倭 不設備 未及還鎮 而賊已登城 撥死於亂兵中 翌日陷東萊府 府使宋象賢死之 其妾亦死之

<자료 24>

『선조실록』권35, 선조 26년 2월 계묘.

慶尙左道觀察使韓孝純馳啓曰 “…釜山東萊西平多大浦等處 畫地築城 設計城基 周回大概五十餘里 東萊倉穀 則移置于釜山浦 日本軍糧 則輸到于釜山前渾阿次島云”

<자료 25>

『선조실록』권206, 선조 39년 12월 을묘.

左副承旨柳澗以備邊司言啓曰 “釜山倭館 若設於舊基 則與今水使僉使所住之處 慮或相逼 初令別擇處所營造 而其後因慶尙監司狀啓 ‘釜城內 中間 有山高峙 可以限隔 不至相妨’ 云 故依狀啓施行事 覆啓蒙允 第因橋倭出來期迫 姑令因前接對於絕影島矣 群議以爲 ‘釜城內 遽令倭人入接 殊爲未穩 不如因初公事 別擇處所 營造之爲便’ 此意 慶尙監司左水使處更爲行會 可設處所看審馳啓 開春卽時 營造爲當 敢啓” 傳曰 “允”

<자료 26>

『선조실록』권212, 선조 40년 6월 신해.

慶尙道觀察使鄭賜湖馳啓曰 “臣巡到釜山 新造倭館入接房屋 已盡完了 宴享大廳 今方豎柱 而或者疑不造於舊基 恐致失權而生怨 臣之所見不然 自前倭館與釜山 非在一城中者也 平時釜山在西邊 倭館在東邊五里許 今則釜山鎮 就倭子所築之城 移設於倭館舊基之傍 卽東邊也 今造倭館 又在於西邊五里許 與釜山相距遠近 與平時一樣 基之新舊 非所當論 渠何敢生怨 此則不足爲慮”

<자료 27>

『인조실록』권45, 인조 22년 7월 정유.

釜山倭館館守等言于洪喜男曰 “釜城非徒昔日之倭館 內外城郭 亦是倭人之所築 還給舊基 理所當然 況此館之基 於風水不好 定欲移創云”…監

司具啓以聞 備局回啓曰 “釜城移館之事 決不可從 且國朝等字高下 乃是從前禮部修答之格例 到今請改 尤極可駭 宜使之開諭”

IV. 끝맺는 말

조선시대 부산의 원도심은 현재 부산시 동구와 부산진구의 경계가 되고 있는 凡川(東川)을 동쪽 경계로, 그 남쪽과 서쪽 해변이나 강변지역이 중심이 되었다고 생각된다. 이곳에는 초기 왜관, 부산포, 수군본영 등이 위치하였고 임진왜란 이후에는 부산진을 비롯하여 개운포진, 두모포진이 이설되었다. 부산진에는 수군의 육상근무가 허락되면서 석성이 축조되었으나 삼포왜란과 임진왜란의 병화로 성이 함락되고 왜인들이 그 자리에 凡川甌山城을 축조하였다. 그러나 정유재란에서 패배한 일본군이 철수하고 그 자리를 조선에서 修·改築하여 釜山鎭城으로 활용하였다. 임진왜란 이후 부산진성 주변의 왜관은 일시 豆毛浦에 머물다가 초량으로 이설되고³³⁾, 부산진성 내부 高處에 왜군이 축조한 장대자리를 철군 후 명나라 장군 萬世德을 기리는 萬公壇이 설치된 뒤 자성대라는 명칭이 생기게 된다. 이런 개략적인 사실이 조선시대 부산 원도심의 역사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釜山이 좌천동 뒷산인 甌山이라는 설은 일제시대 小田省吾闕 및 都甲玄郷이 편찬한 『釜山府史原稿』³⁴⁾와 경상남도에서 조사 보고한 『慶南の城址』³⁵⁾에서 신라시대 東平縣의 전신인 大甌縣과 관련을 지어 증산이 곧 부산이라고 하였다. 해방 이후 이 자료를 비판 없이 받아들인 우리나라 연구자들은 『釜山地方 地名의 由來』³⁶⁾를 비롯해서 『釜山の 古蹟과 地名』³⁷⁾, 『釜山の 脈』³⁸⁾, 『釜山 地名總攬』³⁹⁾, 『가마골 역사이야기』⁴⁰⁾, 『부산의 역사(歷史)와 정신(精神)』⁴¹⁾, 『부산을 배웁시다』⁴²⁾ 등의 저서와 과거에 편찬된 『釜山市誌』⁴³⁾에 이르기까지 이설을 그대로 믿으면서 오늘에 이르게 되

33) 釜山廣域市史編纂委員會, 『釜山市史』1-2, 通史, 1989.

34) 小田省吾闕·都甲玄郷編, 『釜山府史原稿』1(향토편), 1938.

35) 慶尙南道, 『慶南の城址』, 1931.

36) 金義煥, 『釜山地方의 地名의 由來』, 태화출판사, 1970.

37) 金義煥編, 『釜山の 古蹟과 地名』, 부산시, 1974.

38) 崔海君, 『釜山の 脈(상)』, 도서출판 地平, 1990.

39) 釜山廣域市史編纂委員會, 『釜山地名總攬』1 부산광역시 중·서·동구편, 1995.

40) 주영택, 『가마골 역사이야기』, 도서출판 地平, 2000.

41) 김용욱, 『부산의 역사(歷史)와 정신(精神)』, 도서출판 전망, 2001.

42) 주경업, 『부산을 배웁시다』, 부산민학회, 2004.

었다. 그러나 앞에서 이미 설명한 것처럼 증산이라는 산명은 임진왜란 때 왜군이 이곳에 凡川甌山城을 축조한 이후에 생긴 명칭으로 그 이전인 성종 때부터 시작된 釜山이라는 지명과는 우선 시기적으로 차이가 있다. 전기한 <자료 11>의 범천증산성이나 증산성(동래)을 비롯해서 梁山 勿禁甌山城, 蔚山 島山城 및 西生浦城 등 우리나라 남해안일대에 분포하는 왜성들을 대부분 증산성이라고 하였다. 필자 생각으로는 일본에서 城을 시로(しろ) 또는 오시로(おしろ)라고 읽고 있는데 당시 조선에서는 왜성이라는 의미로 일본말인 시로를 시루로 발음 하면서 甌으로 표기하여 甌山城 또는 甌山, 甌臺 등으로 기록한데 기인한 것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증산이라는 산명이 부산지역에서 신라나 고려시대는 물론이고 조선 성종 때 이전의 기록에서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신라시대 대증현과 지금의 증산은 상호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하겠다.

그리고 증산설 외에도 백양산 줄기의 금용산을 지목하는 설도 있으나 이론상 납득하기 어려우며,⁴⁴⁾ 시기적으로 임진왜란을 경계로 그 이전과 이후에 부산⁴⁵⁾이라는 지명이 바뀌었다는 유동적인 설도 역시 이해하기 어렵다. 그러나 전장에서 이미 언급한 것과 같이 『해동제국기』는 富山과 釜山을 혼용 표기하던 성종 초기에 편찬된 책이다. 이 책의 권두에 있는 「東萊富山浦之圖」에는 범천하구에 위치한 부산포를 중심한 주변의 지형과 관청 등을 잘 묘사하여 조선 전기부터 자성대공원이 부산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다. 특히 <자료 7>에서 부산은 가마와 같은 형태의 산에서 그 명칭이 유래하며 그 바로 아래에 부산포가 있다고 하였다. 당시 부산포 주위에는 자성대공원이 위치한 산 이외의 다른 산이 없고 그 형태 또한 가마와 같이 둥글고 볼록하기 때문이다. 또 여기에는 인접한 웅천제포성과 함께 선원들의 무사한 항해와 안녕을 기원하는 견강사와 조월암 그리고 주변에 왜관이 위치하는 등 국제항구로서의 면모도 잘 갖추고 있었던 것이다. 임진왜란·정유재란이 끝나고 해안 쪽 증산성을 수리해서 부산진성으로 활용하고 성내 산정에 있던 장대부분을 정리해서 명나라 장군 만세덕을 기념하는 만공단을 설치한 것도 모두 범천하구의 부산포와 부산이 중심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자성대라는 명칭도 <자료 13>과 같이 임진왜란 당시 왜군이 부산 정상부에 천수각과 같은 장대를 설치한 것을 보고 城中樓閣이라는 의미로 증산성이라는 단어와 함께 후대에 조선에서 붙인 명칭이며 子城이 곧 大城이나 母城에 부속된 小城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특히 왜성의 경우 端城이라는

43) 釜山廣域市史編纂委員會, 『釜山市誌』1, 1974.

44) 高斗東, 『釜山の地名解考 : 옛말로 풀어본 고장의地名』, 『郷土文化』2, 1970.

45) 나동욱, 『부산진성을 통한 부산의 명칭유래 일고찰』, 『박물관연구논총』18, 2012, 105~133쪽.

용어는 보이지만 자성이라는 명칭은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범천증산성이란 오늘날 좌천동 증산(산지부)에서 범일동 자성대공원(해안부)을 잇는 하나의 성곽을 의미는 것으로 왜인들은 부산성이라 하였고 모성과 자성으로 분리해서 명칭 한 사실도 없다. 그러나 일제시대 일본인들이 경남지방의 성지를 조사한 보고서에 자성이나 지성 등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 보고하고 있다.⁴⁶⁾

전기한 신유의 『해사록』 시운도 당시 부산진성 내의 부산에 올라 주변 경치를 보고 읊은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증산은 물론 금용산도 아니고 임진왜란을 전후해서 부산의 위치가 바뀐 것도 아니다. 처음부터 부산은 지금의 자성대공원이 있는 산이 분명하다 할 수 있다.

다음은 부산진성의 위치이다. 부산진성은 앞서도 논의하였듯이 임진왜란을 경계로 그 이전과 이후로 위치가 구분된다. 그 중 이전은 다시 無城시기와 有城시기로 나눌 수가 있는데 무성시기인 초창기 부산진(영)은 『해동제국기』에 營廳으로 표시된 지점 즉, 지금의 좌천동 봉생병원 주변에 성곽 없이 위치했던 것이다. 그것은 현존하는 주변의 우물이 증명한다 할 수 있다. 그 뒤 수군의 육상근무가 가능해지면서 성종 21년



도 10. 『부산진지도』



도 11. 『개운진지도』

46) 慶尙南道, 『慶南の城址』, 1931.

이곳에 성곽이 축조된다. 진성의 범위가 확대되는 것은 물론 전략상 입지조건 등 다양한 논의를 거친 이후에 축조되고 유성시기를 맞게 된다. 그러나 얼마 못 되어 삼포왜란과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진성이 훼손되고 그 자리에는 증산성이 축조되는 등 지형변경이 이루어져 위치조차 확인하기 어렵게 되었다. 다행하게도 임진왜란 이후에 제작되기는 하였지만 『부산진순절도』나 『임진전란도』와 같은 자료들이 남아있어 어느 정도 위치비정이 가능해진 것은 사실이다. 특히 부산진순절도 상단과 하단에 배치된 증산성과 후대의 진성, 『임진전란도』의 정공단과 만공단의 위치와 화기, 현장에 남아있는 우물 등은 당시 부산진성의 위치비정에



도 12. 『개운진지도』 중 釜山故基 부분

도움이 되는 자료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 자료를 참고한다면 임진왜란 이전의 부산진성은 현재 동구 좌천동 봉생병원에서 북동쪽 해안의 저지대에 위치하되 정공단 위치가 북쪽 경계가 되었을 것이 예상된다. 조선후기 지방지도에 釜山故基 또는 釜山古址라는 화기가 증산 정상부 가까운 내부에 표기되어 있는 것을 보고⁴⁷⁾ 부산과 부산포의 옛 중심지로 이해하는 사람도 없지 않으나, 이는 임진왜란 이전의 부산진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부산진순절도』를 자료로 묘사한 그림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임진왜란이 끝나자 부산진성은 해안 쪽의 증산성을 일부 수·개축해서 진성으로 이용된다. 이곳 부산진성 이설에 대해서는 앞장에서 문헌과 그림 등 각종 자료를 통해서 설명한 것과 같이 비교적 관계 자료가 풍부한 편이다. 그 가운데 『부산진순절도』 하단의 성문과 성벽 그리고 성내에 설치된 만공단, 다각구도의 평면형태, 영가대와 굴항의 위치 등 현재의 자성대공원 주변이 부산진성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여기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특히 성문, 성벽 등 근대 서양인들이 제공하는 사진자료에서도 잘 나타나 있어 그 확인이 가능하다. 현재 자성대공원 입구에 설치된 안내판의 설명서는 조선후기 지방지도 중 부산진성을 해설한 자료를 검토하지 않고 그대로 이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⁴⁸⁾ 따라서 부산진성은 우선 시기적으로 임진왜란

47) 서울대학교 奎章閣編, 『朝鮮後期地方地圖：慶尙道編』의 『開雲浦鎮地圖』, 『豆毛浦鎮地圖』 등에서 정상에 釜山故基 또는 釜山古址라 표기하고 있다.

48) 서울대학교 奎章閣編, 『朝鮮後期地方地圖：慶尙道編』의 『釜山鎮地圖』의 해설부분(41쪽)에 “임진왜란으로 부산진을 함락한 왜적은 이곳에 주둔하면서 부산진의 지성을 축조하였는데,

을 경계로 이전과 이후 단계로 그 위치가 구분되는데 이전은 동구 좌천동 해안지대, 그리고 이후는 동구 범일동 자성대공원 주변에 각각 위치하였던 것이다.

종합하면 부산이란 현재 자성대공원이 있는 산을 명칭 한 것이고, 부산포는 그 아래 동쪽 범천하구와 부산 사이의 해안일대에 분포하던 항구라고 하겠다. 그리고 부산진성은 임진왜란 이전에는 지금의 좌천동 봉생병원에서 그 북동쪽 해안 저지에, 그리고 이후에는 현재의 자성대공원(부산) 주위에 각각 위치하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원도심 재생 차원에서 자성대라는 명칭은 부산이라는 원래 명칭으로 복원되어야 마땅하다고 하겠다.

■ 투고일 2014년 1월 28일 | 심사완료일 2014년 2월 18일 | 게재확정일 2014년 2월 28일 ■

이것이 지도에 보이는 부산진성이다”라고 설명한 것을 그대로 실은 것이다.

참고문헌

<사료>

『三國史記』
『朝鮮王朝實錄』
『新增東國輿地勝覽』
『海東諸國記』
『忠烈祠志』
『東萊府邑誌』
『大東地誌』

<국내>

東萊府『牧場地圖』,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1663.
서울대학교奎章閣編, 『朝鮮後期地方地圖：慶尙道編』, 1872.
慶尙南道, 『慶南の城址』, 1931.
小田省吾閣·都甲玄郷編, 『釜山府史原稿』1, 1938.
慶尙南道誌編纂委員會, 『慶尙南道輿誌集成』, 1963.
김의환, 『釜山地方의 地名의 由來』, 대화출판사, 1970.
國史編纂委員會, 『韓國史料叢書10：『與地圖書(下)』』, 探究堂, 1973.
釜山廣域市史編纂委員會, 『釜山市誌』1, 1974.
韓國學文獻研究所, 『韓國地理誌叢書：『邑誌』20, 慶尙道④』, 亞細亞文化社, 1987.
차용걸, 『高麗末·朝鮮前期 對倭 關防史 研究』,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8.
釜山廣域市史編纂委員會, 『釜山市史』1 通史, 1989.
_____, 『釜山地名總覽』1 부산광역시 중·서·동구편, 1995.
이일갑, 『남해안지역 연해읍성의 편면형태에 관한 연구』, 『文物研究』13, 동아시아문물연구학술재단, 2008.
이현주, 『朝鮮後期 在地畫員 小考：18세기 東萊 在地畫員 卞璞의 官需繪畫 연구』, 『文物研究』14, 동아시아문물연구학술재단, 2008.
김동철, 『倭館圖를 그린 卞璞의 대일교류활동과 작품들』, 『조선통신사 사행록 연구총서』10, 학고방, 2009.
이현주, 『동래부 화원 李時訥연구』, 『역사와 경계』76, 부산경남사학회, 2010.
나동욱, 『부산진성을 통한 부산의 명칭유래 일고찰』, 『박물관연구논집』18, 부산박물관, 2012.

Abstract

A Study on Spatial Analysis of Busanpo and Busanjin Fortress

Sim, Bong-Keun

Busan had been used to be written with Chinese characters 'Busan(富山)', but it has changed to 'Busan(釜山)' since the first December under the rule of King Seongjong. According to many old documents including 'Dongkukyeojiseunglam', 'Busan(釜山)' came from a cauldron-shaped surrounding mountain and Busanpo was located below it. Although the dominant view is that 'Busan(釜山)' indicating 'Jeungsan(甑山)', a hill located in Jwacheon-dong, Dong-gu, had been used after Beomcheonjeungsanseong Fortress(凡川甑山城) was constructed during Imjin War, it is not related to 'Busan(釜山)' the name that has been used since the early King Seongjong period. Many numerical reviews were conducted on the relevant documents, but they weren't a great help. In addition, the phrase '山勢亞如釜 城門臨水開...波濤拔地廻 使華留滯日 登眺共徘徊' of 'Deungbusanchanasanun(登釜山次螺山韻)', written by Shinyu in 1643, which has been widely cited for the Jeungsan theory, is useful material to understand Busanjin Fortress after Imjin War, but it is not relevant to the fortress before Imjin War. One of useful materials is 'Dongraebusanpo map' of 'Haedongjegukgi(海東諸國記)'. This map was attached to Yejojawrang(禮曹佐郎) Namje's report for the fire of Sampoweho and the result of census of Japanese people living in Korea in the fifth year of King Seongjong(1474). The map is relatively well describing Youngcheong, rivers, mountains, islands and sea surrounding Jaseongdae Park and the mouth of Beomcheon. Especially, it is the only data that describes pre-Imjin War Busanpo including Gyeongangsa Temple(見江寺) located in the northeast of Jaseongdae Park, Jowalam in the east of it, buildings densely built around the mouth of Dongcheon and Dongcheon Bridge. Therefore, it indicates that Jaseongdae Park signifies

Busan since there are no mountains, except the mountain in Jaseongdae Park, around Busanpo on the assumption that Busanpo is located below the cauldron-shaped mountain called 'Busan(釜山)'. In addition, Mokjangseong Map made in 1663 showed that individual wooden fences were installed at Octuplicate Ridge of Jaseongdae Park and the shore under it, and that the fortress with trenches was marked around the shore. 'Busan(釜山)' is marked with Chinese ink on the top of it, which indicates the location of Busan again.

Next is the location of Busanjin Fortress. The location of Busanjin Fortress is divided into the pre-Imjin War location and the post-Imjin War location. Therefore, it is assumed that Busanjin Fortress was located in the valley or the lowland adjacent to the coastline in the northeast of Bongsae Hospital on Jwacheon-dong which was marked as Youngcheong in 'Haedongjekukgi' before Imjin War. The current location of Jeonggongdan would be the northwestern boundary. Although most of maps made in the late Joseon Dynasty indicates that the fortress is located to the top of Jeungsan above Jeonggongdan, it does not satisfy geographical conditions of the fortress of naval force. 'Painting of the Battle of Busanjin Fortress' made later marks Jeungsanseong Fortress in Jeungsan and ramparts (Busanjin Fortress later) including the castle gate around Jaseongdae Park and shows Busanjin Fortress in the middle of it. It would be no difference with the prediction mentioned before, even considering the coastline crowded with vessels, Japanese fortress on the top and seaside fortress.

Meanwhile, Japanese people constructed Beomcheonjeungsanseong Fortress (Japanese castle) in the hill of Jwacheong-dong and the coastline below Jaseongdae Park of Beomil-dong after Busan Castle had been fallen during Imjin War. However, since the Japanese forces who were defeated in Jeongyu War left, Jaseongdae was remodelled a part of Japanese castle in Jaseongdae Park which is in the middle of Beomcheonjeungsanseong Fortress and used it as Busanjin Fortress. Japanese residents were shifted to the west, and Gaeunpojin and Dumopojin were moved to Jowacheong-dong and Sujeong-dong.

Busanjin Fortress was settled around Jaseongdae Park. The neighborhood of Jaseongdae Park is marked as Busanjin Fortress in Saroseungudo, Painting of Younggadae of Jinjehwacheop, Local Maps in the Late Choseon Dynasty. In addition, the reason why the plane of Busanjin Fortress is polygonal instead of oval, round or square is the result of partial use of Japanese castle. Therefore, it is obvious that the current rampart around Jaseongdae Park is not a small castle of Busanjin Fortress but the location of Busanjin Fortress after Imjin War.

In other words, the original downtown of Busan(富山) in the Choseon dynasty is the neighborhood of Jaseongdae Park of Beomil-dong at the mouth of Dongcheon which used to be the location of Busanpo. Moreover, the cauldron-shaped mountain Busan(釜山), the name changed from Busan(釜山) in the early King Seongjong period, is the mountain where Jaseongdae Park is located in. In case of Busanjin Fortress, it used to be located in the northeastern coastal lowland of Bongsae Hospital on Jwacheon-dong before Imjin War and its location changed to the current Jaseongdae Park on Beomil-dong after Jeongyu War. Hence, it is desirable that the current name 'Jaseongdae' should be changed to Busan, its original name, in terms of restoration of the original downtown of Busan.

Key words : Busanpo, Beomcheonjeungsanseong Fortress, Jeonggongdan, Deungbusanchanasanun, Haedongjekukgi, Dongraebusanpo Map, Gyeongangsa Temple, Jowolam, Saroseunggudo, Jinjehwacheop, Younggadae

